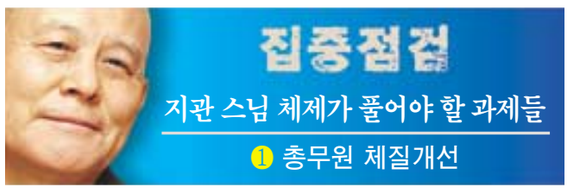
안전하고 편리한 구독신청
현대불교신문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자동이체 신청 ●
대표 (02)2004-8211~2

현대불교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 연등제작사
031)792-6288/794-4055

붓다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11월 9일(음력 10월 8일) 수요일 (주간) 제 551 호



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 지관 스님 체제가 출범했다. 총무원장 선거가 '뒤탈' 없이 끝난 가운데 한국불교의 모든 염원이 '종단의 화합과 안정'으로 쏠리고 있다. 조계종은 그간 도약을 향한 다양한 움직임을 끌어안은 채 새로운 종단 면모 갖추기에 심혈을 기울여 오면서 내적인 갈등도 함께 키워왔다. 기존의 갈등구조를 일소하고 종단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출범한 지관 스님 체제의 당면 과제들을 진단한다.

권위 버리고 '서비스'로

'총무원 주도' 보다는 지원 체제 필요… 동국대 문제 묘수 찾아야

●행정의 자세 교정

일반 기업체들이 '관리 행정'에서 '서비스 행정'으로 변화를 꾀하며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정부 또한 '작은 정부' '전자 정부'를 표방하며 몸집은 줄이면서 높은 효율을 추구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도 '관리 행정'에서 '서비스 행정'으로, '작은 총무원' '전자 총무원'으로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총무원은 각 사찰 주지 임면권과 종단과 사찰에 속한 재산의 감독과 처분 승인권을 갖는 등 권한과 책임이 막중하다. 이로 인해 총무원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교구본말사는 총무원의 눈치를 보며 위축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은 총무원의 권력화로 이어져 과열선거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총무원의 체질개선을 위해선 집중된 권한을 일정부분 교구본사로 이양해야 한다. 또 각종 사업 주체를 단위 사업체로 넘겨야 하고, 총무원은 주요 정책결정 기구로 남아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총무원은 자연스럽게 '슬림화'되고 교구는 '활성화'될 수 있다.

총무원장 지관 스님도 △각 교구본사 특성에 맞는 분권종무행정 기틀 마련 △말사주지 인사권 이하 주요 종무 권한 교구본사 상황에 맞게 이양 등을 10대 분야 종책 공약으로 내놓기도 했다.

중앙종회의원 성관 스님(前 총무부장)은 "율장이나 청규 등 불교 고유 전통은 도외시한 채 일반 사회이론을 무조건 도입하는 것은 고민해 봐야 한다"면서도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면밀하게 검토한 뒤 구호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장자종단 이데올로기' 벗어야

조계종은 한국불교 대표종단, 장자종단임을 표방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주요 종단들의 모임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당연직 회장을 맡는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불교계를 대표할 뿐 아니라 종교계를 대표하기도 한다. 31대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한국종교를 대표하는 7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직을 맡았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조계종이 '장자종단 이데올로기'에 빠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즉 권한과 이익만 강조한 채 책임은 도외시한다는 것이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한국불교 전체 발전을 도모해야 하지만 '조계종'에만 국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태고종 사회부장 법현 스님(前 종단협 사무국장)은 "조계종의 현실적인 위상은 인정하지만 지금보다 많은 역할론이 요구된다"며 "그래야 다른 종단에서도 조계종을 한국불교 대표종단으로서 믿고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 활동 뒷받침

조계종에는 중앙신도회를 비롯해 각종 산하단체들이 있다. 또 외곽으로는 신행단체와 불교시민사회단체, 각종 학술단체들이 있다. 이들 단체는 대사회 활동을 직접 펼치며 교육과 포교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니고 역할한다.

종단 위상이 높아지려면 각종 단체 활동이 보다 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불교의 대사회적 활동 요구가 더욱 증대되는 요즘 '공공성'이 강조되는 종단보다는 '목적성'이 분명한 단체들의 활동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불교계 단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불교시민사회단체 공모사업'이 예산상의 이유로 유보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지관 스님은 △'불교시민사회센터' 설립 지원(불교 인력풀로서의 역할) △'불교시민사회단체 지원법(가칭) 법제화 추진 등을 10대 분야 종책 공약으로 내놓기도 했다.

참여불교재가연대 박광서 상임대표는 "불교계 단체 활동이 활발해야 종단 외연과 위상이 높아진다"며 "종단에서 이에 대한 분명한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동국대 위상 높이기

동국대 정관에 따르면 이사는 연간 3000여 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심의할 뿐 아니라 산하 기관장 선임 및 교원 임용, 수익사업 등을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특히 13명의 이사 중 정관을 개정할 수 있는 이사 정족수인 9명의 스님 이사는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동국대 이사회에 종단 각 계파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인사, 예산, 행정 등 거의 모든 결정을 이사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가 안정되지 않으면 학교도 안정될 수 없다. 또 학교가 안정되지 않으면 종단 또한 안정되지 않고, 종단 위상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개교 100주년을 앞두고 동국대 발전을 위해선 현 이사회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스님 이사 수는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재가 이사 수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교 재정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갖춘 사회인사 중심으로 이사회가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동국대 교수는 "과거 3대 사학 중 하나였던 동국대 위상이 현재처럼 떨어진 것에는 이사회 책임 또한 크다"며 "더 이상 종단 정치에 학교가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11월 3일 열린 제25차 원로회의에서 의장 종산 스님(사진 왼쪽)이 만장일치로 지관 스님 인준을 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새 총무원장 중심 화합을"

조계종 원로회의 지관 스님 '인준'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종산)는 11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25차 회의에서 제32대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만장일치로 인준했다.

지관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총무원장에 당선시켜 준 사부대중의 뜻에 부합하기 위해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신명을 다하겠다"며 "특히 종단 화합과 수행, 포교 등 내외형적 불사 균형을 맞추는데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대해 원로의원스님들은 "불교중흥의 큰 틀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 총무원장을 지지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새 총무원장스님은 종단 개혁과 사회참여활동 및 종단 투명성 강화를 염두에 두고 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원로회의에서는 또 △모든 승려들은 새 총무원장을 중심으로 단합해야 한다 △새 총무원장은 능력 있는 인사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해 문중과 계파의 골을 메우는 한편 정치적 견해 차이 등으로 징계됐던 스님들을 사면하는 대화합의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또다시 후보자격과 관련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종단을 분열시키는 해종행위에 다름 아니다 등을 결의했다.

지관 스님은 인준 후 현고 스님에게 총무원장 직인을 인수하는 등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남동우 기자

14일 총무원장 취임식

역사문화기념관 개관식도

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 지관 스님 취임식 및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개관식이 11월 14일 오후 1시부터 조계사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봉행된다.

조계사에서 봉행되는 취임식은 약력소개, 종정 스님 법어, 취임사, 각계 축사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념관에 열리는 개관식은 경과보고, 테이프 커팅 및 제막식, 조계종 근현대사 기록물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된다. 남동우 기자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
세상을 향한
열린 대화! 자비
-논의제일 가전연
지운 스님 | 11월 9일 오후 7시 | 광주 동구 KT정보센터

'할'

그림 · 조태호

진철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천수경"은
우리 가슴속에 자리한 부처님의 지혜와
관세음보살의 자비입니다.
천수경의 비밀
김호성 지음 | 신국판 | 값 7,500원
천수경의 비밀
간음신앙의 근본경전. 신앙생활의 필수가 되어 버린
천수경은 불자님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남을 경전입니다.
천수경과 함께라면 당신도 이제 진정한 불교의 세계로 초대된 불자입니다.

민족사 732-2403~4 minjoksa@chol.com
철·우·스·님·이·풀·어·가·는·계·율·단·상
욕심을 버리는 방법
영산율원의 철우스님께서 후학을 지도하면서
삶 속에서 느낀 경험을 통해서
쉽고 재미있게 풀어가는 계율이야기
풍족함에 대한 유혹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것이
"부족함의 복을 누리고 사는 지혜"
철우스님은 대구 파계사 영산율원의 율주스님으로서
젊은 스님들과 오래도록 한 회상에 같이 살면서 이야기를 하고,
듣고, 배움을 바람으로 살아가시는 분이다.
철우스님 지음 | 신국판 8,500원

알기 쉬운 불교입문서에 유쾌하게 빠져봅시다
유쾌하게 읽는
불교
고영섭 지음 | 신국판 | 값 9,000원
불교공부가 어렵고 부담스럽다고
중도에 포기하고 마는
사람들을 위한 고정관념을
"유쾌하게 벗어버리는 책"이
1500만 불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불교 개론서처럼 불교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들을 망라하면서도
아주 읽기 쉽게 씌어진 교리와 수행의 핵을 짚은 불교입문서